

세계적 양산의 환상적인 골프경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 인터넷회원 예약시
- 평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5만원까지 할인가능
-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 맨유 박지성 신년 첫 '만남' 기대 토트넘 이영표



박지성(27·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과 이영표(31·토트넘)가 2007-2008 잉글랜드 FA컵 32강전에서 '우정의 대결'을 펼칠 공산이 커졌다. 잉글랜드축구협회가 8일(이하 한국시간) 홈페이지(www.thefa.com)를 통해 발표한 FA컵 4라운드(32강) 대진표에 따르면 맨유는 토트넘과 레딩의 재경기 승자와 홈 경기로 16강 진출을 다투게 됐다.

지난 6일 FA컵 3라운드에서 2-2로 승부를 내지 못했던 토트넘이 16일 새벽 레딩과 재경기에서 승리할 경우 박지성과 이영표는 프리미어리그 진출 이후 통산 네 번째 맞붙게 된다.

박지성과 이영표가 처음 맞선 것은 2005년 10월 23일. 당시 박지성은 왼쪽 날개로, 이영표는 왼쪽 풀백으로 출전하는 통에 직접 맞닥뜨리는 장면은 연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2006년 4월 17일 벌어진 두 번째 대결에서는 박지성이 오른쪽 날개로 출전해 왼쪽 수비수로 나선 이영표와 경쟁을 펼치면서 국내 팬들을 흥분시켰다. 특히 전반 36분 박지성은 이영표를 압박해 볼을 빼앗은 뒤 웨인 루니의 골을 도우면서 팀 승리에 공헌하

는 짜릿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당시 박지성과 이영표가 그라운드에서 스쳐 지나가며 서로 눈길을 다른 곳에 둔 채로 살짝 손을 맞잡은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 축구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가장 최근 대결은 지난해 2월 5일 토트넘의 홈 구장인 화이트 하트레인에서 치러졌다. 이영표는 풀타임을 소화한 반면 박지성이 후반 23분엔 교체 투입돼 짧은 만남으로 끝났다.

한편 영국 축구팬들의 관심은 올해 FA컵 아마추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해버트 위털루빌(5부리그)과 리그1(3부리그) 선수를 달리고 있는 스완지와 재경기에 쏠리고 있다.

해버트 위털루빌이 승리할 경우 리버풀-투턴 시티전 승자와 32강전에서 만나게 돼 축구팬들은 내심 리버풀-해버트 위털루빌전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잉글랜드 축구협회는 FA컵 16강전에 적어도 7개 정도의 아마추어 팀이 진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밖에 지난해 FA컵 우승팀 첼시는 위건 애슬레틱과 16강 진출을 다투게 됐고, 아스널은 스토크 시티와 뉴캐슬 재경기 승자와 맞붙게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연합뉴스



### 토트넘, 레딩 재경기 이기면

### FA컵 32강서 맞대결 가능성

### '허정무호' 데뷔전

### 김 빠진 경기 우려

허정무호의 데뷔전 상대인 칠레 축구대표팀이 주전 멤버를 대거 제외한 채 방한한다.

8일(한국시간) 칠레축구연맹(FFCH) 홈페이지에 따르면 아시아 투어에 나설 칠레 대표팀 명단 18명에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남미예선에서 활약 중인 키 플레이어들이 대거 빠졌다.

2007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활약한 미드필더 마티아스 비단고시(21·스페인 알메리아)를 제외하고 전원 국내파로 구성됐다.

특히 특급 골잡이 움베르토 수아소를 비

#### 칠레팀 주전 대거 빠져

#### 국내파 18명으로 구성

롯데 노장 공격수 마르셀로 살라스, 기대주 마티아스 페르난데스 등 공격의 주축들이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살라스가 2골을 넣는 등 이들은 남아공 월드컵 남미 예선 4경기에서 팀이 기록한 4골을 합작했다.

이번 친선경기일이 FIFA A매치 데이 아니냐 칠레 대표팀도 선수 소집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월드컵 남미예선에 출전한 선수는 곤살로 하라와 곤살로 피에로, 에두아르도 루비오, 카를로스 비야누에바 등이 한국을 찾는다.

칠레는 26일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일본과 기린 켈린지컵을 치른 뒤 30일 마포구 상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태극전사와 맞대결을 벌일 예정이다.

칠레는 남아공 월드컵 남미예선에서 1승 무2패로 7위에 머물러 있다.



### 체코 바이디소바 "받아내야 한다"

8일 호주에서 열린 시드니국제테니스대회 여자부 단식에서 체코의 니콜 바이디소바가 슬로바키아 다니엘라 한투코바의 공을 받아야만 한다고 했다.

'월드컵 4강 청부사' 거스 히딩크(62) 러시아 축구대표팀 감독이 각국 대표팀 사령탑 가운데 두번째로 많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에서 발행되는 축구전문 월간지 '월드사커' 1월호에 따르면 히딩크는 연봉으로 200만 파운드(약 37억원)를 받고 있다. 히딩크의 연봉은 러시아축구연맹과 프리미어리그 첼시 구단주인 '석유

### 히딩크, 세계 각국 대표 감독 연봉 2위...37억원

재벌'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나눠서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축구종가' 잉글랜드의 스티브 맥클라렌 전 감독이 받았던 250만 파운드(약 46억원)에 이어 주요 축구대표팀 사

령탑 연봉 중 두번째로 많은 액수이다. 조사대상 가운데 잉글랜드 감독은 맥클라렌 감독으로 꽤 있어 월드사커가 발표한 자료는 파비오 카펠로 선임 잉글랜드 감독이 취임하기 전에 조사된 것

로 보인다.

카펠로의 경우 계약 당시 맥클라렌의 두 배가 넘는 600만 파운드(약 114억원)를 연봉으로 받는다고 알려져 순위에는 변동이 없을 것 같다.

3위는 위르겐 클린스만 후임으로 '전차군단' 독일 지휘봉을 잡은 요아힘 뢰브 감독인데 연봉이 175만 파운드(약 32억원)다.

### 프리미어리그 포츠머스

### 금주 중 조재진 테스트



조재진(27·사진)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포츠머스가 공격수 3~4명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일(한국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포츠머스의 해리 레드넬 감독은 "아프리카계 선수들이 빠지는 자리에 서너 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적절한 선수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프리미어리그 8위를 달리고 있는 포츠머스는 오는 20일부터 가나에서 열리는 아프리카 대륙선수권대회인 네이션스컵에 주전 공격수 벤자민 음와루와리(짐바브웨), 은완 퀴 카누(나이지리아) 등이 장기 차출될 것으로 보여 공격수 자원이 절실한 상태다.

포츠머스는 이번 주중 조재진을 테스트한 뒤 입단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고 영국 언론은 보도했다.

한편 포츠머스는 이날 스위스 바젤에서 뛰는 18세 공격수 다니엘 수보티치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골프·연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독펠리 회원권**

골프장	시세/원	골프장	시세/원
관주	3,450	승인	1,700
남관주	4,400	골드	1,900
승주	8,200	도보양	2,100

상담 (062)351-0095